현불논단

죽음마저 불평등한 사회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인도인들 평생 소원, 갠지즈강서 火葬
부자, 빈자 모두 죽을 땐 같아 보이나
존엄한 죽음은 자본의 유무로 나뉘어
계급 낮은 빈자는 강가에도 못 간다

한국 역시 빈곤 고독사 사회문제 대두
가난과 질병 인한 가족 동반자살 발생
내 안락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얻는 것
안타까운 죽음에 겸손을, 자비를 품자

인도인들은 평생 소원이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에 들어가 목욕하고, 강물을 마시는 일이다. 또 하나는 죽음에 임박해 갠지스강변에서 죽어 그곳 화장터에서 화장된 뒤에 재가 갠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소원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죄업이 씻기어 다시는 고통의 사바세계에 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인도인들에게 갠지스강은 '어머니의 강(Ganga mata ji)'이라고 하여 갠지스강 자체를 신격화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영혼이 숨 쉬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면서 다수(多數)를 표현할 때, '갠지스강 모래'에 비유하셨다.

10년 전, 갠지스강가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갠지스강변으로 들어와 화장하는 것을 보았다. 생사(生死)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인생의 가치 개념을 사유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방송에서 인도의 갠지스강변의 화장터를 보여주었는데, 방송의 패널(panel)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

"결국에는 부자였던 사람이든, 가난했던 사람이든 갈 때는 다 똑같다."

인간이 생전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인데, 필자는 그 말에 공감되지 않는다.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듯 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런데 물리적인 인생 4고는 누구에게나 똑같을지 모르지만, 존엄한 죽음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인구를 자랑하며, IT업계 인재를 배출하는 인도! 그러나 카스트(caste)계급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웃카스트(out-caste)의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최하위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난과 불평등으로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들은 죽을 때가 되어 갠지스강까지 와서 화장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유가족이 돈이 부족해 시체를 완전하게 화장할 만큼 나무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계급이 낮은 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은 갠지스강에 와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인도인들의 사고로, 어머니의 강에 와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끝없는 번뇌 속에서 윤회한다.

인류 역사에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평등이 이뤄진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 '모두가 공평히 부를 누리자' 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갠지스강가의 죽음과 같은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근자 젊은 청년이 고시원에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일이 지나서 발견되고, 그가 남긴 글귀에는 온통 취업에 대한 걱정이다. 노년 고독사는 더더욱 안타깝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연명하다 죽음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쓸쓸이 이생을 떠난다. 가장 슬픈 일은 가난과 질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이다.

생로병사는 모든 중생에게 똑같지만, 경제적인 부에 따라 죽어서도 차별 받는다. 잘 죽는 죽음(well-dying),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죽음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필자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한을 품고 이생을 떠났겠는가? 그렇다고 사회 약자를 위한 시스템에 문제있다고 오롯이 국가만 탓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따뜻한 밥에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차디찬 잠자리에 눈물 젖은 빵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군가는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경험하는 편리함과 안락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돌게 하는 노동력과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겸손하자.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좀 나눠주며 살자!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영천사지와 예기소

비가 참 많이도 오는 장마다. 이때가 되면 제주는 더욱 아름다운 섬이 된다. 건천으로 말라 있던 하천들이 한라산 정상으로부터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 줄기, 돈내코 원앙폭포로부터 바다로 흘러 쇠소깍에 이르는 효돈천의 풍광은 더욱 그럴싸하다.

효돈천의 옛 이름은 영천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를 보면 '영천천(靈泉川)'으로 돼 있는데, 조선 말기 〈조선지형도〉에는 '효돈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영천천의 이름은 사찰명에 유래해서 불리다가 조선 중후기 불교의 흔적을 지우는 일환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영천사 터는 영천오름 서쪽의 효돈천과 인접한 하천 대지상에 자리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의 정의현 불우조에는 '영천사는 천 동쪽 언덕에 있는데, 영천관과 동서로 서로 마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제주목사 김흠조에 의해 1525년(중종 20)에는 정의현성을 옮길 후보지로 영천관 일대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처럼 영천사 주변은 당시 제주의 동남쪽 지역을 관리하는 정의현의 행정관할에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위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동여비고〉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영천사가 언제 폐사됐는지 알 수 없다.

영천사지 서쪽 둔덕 바위에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나암(觀儺岩)'이라는 마애명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영천사에서 행해지던 불교의식인 나례(儺禮)를 구경하던 장소로 추정된다. 나례는 승려들이 주도해 섣달그믐날 가면을 쓰고 주문을 외면서 귀신을 쫓는 춤을 춰서 잡귀를 몰아내던 의식이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점차 나례에서 역병을 구하는 의식보다 놀이의 잡희부가 확대되면서, 나례가 나희(儺戱)로 변모되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보면, 세조 12년 1466년 절제사 이유의가 절 맞은편에 영천관을 짓고 마필을 점검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점마사(點馬司)들이 오면 국마로서 많은 말이 뽑히게 하려고 기생이나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환대하였다. 이는 영천동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런 일정이었다. 영천사지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락산과 영천악 사이에 절벽이 있는 좁은 냇목이 있다. 관리들은 이 절벽에 외나무다리나 밧줄을 메어 그 위에서 아슬아슬 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며 즐기곤 했다. 이와 관련된 '예기소(藝妓沼)'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 온다.

어느 날 애향이라는 기녀와 일행들이 불려와 기예를 하다가, 애향이 그만 깊은 계곡에 떨어져 죽었다. 그 한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장대비가 사흘 밤낮을 퍼부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진혼제를 지내고 극락왕생을 빌어주며 그 시신을 영천악 남측기슭에 묻어주니, 비로소 비가 그쳤다. 그 후로 애향이 떨어진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소(沼)가 생겼고, 그녀의 기일에는 느닷없이 비가 오고 돌풍이 이는 일이 많았다. 그 후로 관리들의 향연인 나희는 금지됐고, 사람들은 여길 '예기소'라고 불렀다.

영천천의 사연이 세월에 건천이 되어도/ 달빛 한 줄기 바람결에 내려오면 님들의 넋들은 비무(悲舞)를 시작하고/ 영천오름 꾀꼬리의 긴 울음, 그날의 한(恨) 바위에 새기던 스님의 징 소리라네/ 그대 잊지 않기를, 하염없는 장맛비가 영천을 따라 굽이쳐 흐르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부쳐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일대에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세계 여성불자 3000여 명이 참가한 대회는 다방면에서 한국불교 비구니승단과 여성불자들의 단결된 힘을 세계에 알리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회는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외국인 참가자 600여 명을 포함해 3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인원 참석에 따른 식사와 숙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음에도 한국 비구니승가의 꼼꼼한 기획과 여성불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큰 문제없이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다.

이번 대회가 뜻깊었던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점이다. 대회 참가자 모두는 행사장에서 일체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모습을 보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거리 운동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반환경적인 업을 참회하고, 얼마나 환경에 대해 무심해 왔는지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2040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소욕지족과 친환경적 삶 구현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협 앞에서 여성불자들의 깨어있는 지혜와 실천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이번 샤카디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준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에 큰 박수를 보낸다.

태고종 외연 확대 기대한다

2015년 내홍으로 얼룩진 분규사태와 53억 원에 달하는 종단관련 부채로 인해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암흑기를 보낸 태고종. 각고의 노력 끝에 부채를 상환 · 탕감하고 2019년 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 스님이 취임하면서 태고종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4년 동안 종단 안정화의 기반을 다진 호명 스님에 이어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지난달 27일 임기를 시작했다. 스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외연 확대는 종단 위상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새로 임명한 부 · 실장단에 대사회 사업과 종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주문했다.

전국 3400여 사찰과 25개 교구, 5대 본사로 이뤄진 태고종은 종단 규모 면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앙집권형이 아닌 개별 사찰 중심으로 종단이 운영돼 늘 구심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분규사태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회비를 미납하면서 종단 의전서열이 2위에서 5위까지 밀려나는 수모도 겪었다.

태고종도가 새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종단의 과거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진 스님은 "종도 스스로 태고종도라는 걸 자각하고 발전의 주체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진 스님이 종단 운영 기조로 강조한 공심(公心). 이웃종단 대표들을 만나 "그동안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태고종이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힌 사과와 각오에는 스님 개인 원력뿐만이 아닌 1만 태고종도의 염원도 깃든 것으로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